



당근은 정말 딱 질색이야

주황색 당근만 보면 저절로 고개가 돌아갔어요.



작은 씨앗을 흙에 묻어요

무슨 싹이 나올지 모른 채 작은 구멍 속에 씨앗을 넣었지요.



매일매일 물을 듬뿍 줘요

초록빛 작은 잎이 돋아나자 매일 아침 달려가 돌보았어요.



흙 속에서 쑥 나온 주황빛

온 힘을 다해 앞줄기를 당기자 통통한 당근이 쑥 솟아올랐어요.



아삭 베어 무니 정말 달콤해

흙을 털고 한 입 베어 물자 입안 가득 향긋하고 달콤했어요.



이제는 당근이 제일 좋아

직접 가꾼 텃밭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맛을 찾았어요.